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탱크병경기대회-2016》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탱크병경기대회-2016》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환영서동지, 박영식동지, 리명수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군종사령관들과 군단장들이 맞이하였다.

탱크병지휘관들, 각급 군사학교 교원들이 훈련을 참관하였다.

경기대회는 전군에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백두산훈련연풍의 불가마속에서 모든 탱크병부대, 구분대들을 높은 기동력과 타격력을 갖춘 무쇠철갑대로 철저히 준비시켜 기동타격부대들의 싸움준비를 더욱 완성함으로써 일단 명령이 내려면 멸적의 무쇠탈출으로 적들의 아성을 무자비하게 짓동개버리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경기대회는 추첨으로 정한 군단별 순서대로 출발한 탱크들이 경기주로의 9개 계선에 설치한 장애물을 극복한 다음 이동 및 부동목표에 대한 사격을 진행하고 장애물극복은전점수와 탱크

포사격점수를 종합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대회에는 군단들에서 선발된 탱크승조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시소

에서 경기대회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경기를 시작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출발구멍이 내리자 무쇠철갑의 동음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였으며 맞닥

는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즉량쳐버릴 영웅한 탱크병들의 담대한 배짱을 과시하며 탱크들이 질풍처럼 내달리였다. 실전을 가상하여 설치한 각종 장애물들을 단숨에 극복한 탱크들이 목표들

을 향해 원추격멸의 포란을 날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노도치는 무쇠철마들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탱크들이 장애물들을 넘어야 할데 정말 훌륭하다고, 탱크는 인민군대의 기상이라고 하시면서 가슴이 후련하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멸적의 동음소리와 함께 탱크병들의 가슴마다에 용맹을 안겨주며 울려 퍼지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힘찬 메아리로 하여 훈련장이 아니라 전장운 방불케 한다고 하시면서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경기대회는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하늘과 땅, 바다소리를 칠용성감이 지키고 있는 전군의 장병들이 일단 명령이 내려면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백두의 폭풍과 같이, 백두의 번개와 같이 단숨에 달려나가 이 세상 제일 너절한 미제와 피뢰적들, 그 추종무리들을 바다귀도 추리지 못하게 목사발 만들것이라는것을 단호히 보여주었다.

4 면 으 로 계 속

